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 제10 법사품

법사(法師)

예로부터 <법화경>은 공덕경(功德經)이라고 불리고 있다. 공덕이란 덕(德)을 쌓으면 공(功)이 된다는 뜻인데, 격이란 바로 배움(德)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덕이란 배움(德)으로 말미암아 공(功)이 된다는 것이니, 이러한 공(功)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여 지켜주시는 가(護)는 뜻이다. 그래서 법사품은 곧 새로 뜻을 세운 보살이 증생에게 법을 나누어 주어 두려움(無畏)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왕을 등장시키고 있다.

법사품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전이며 이 경의 한 시승(僞經)이나 한 구절(一句)이라도 받아들여 믿는(信受) 사람은 모두 성불(成佛)한다고 설한다. 물론 성불이란 부처님이 된다는 이야기지만 성불의 조건으로서 모든 번뇌를 멸진(滅盡)

이라 하여 설하고 있다.

이 '법사품'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사(法師)'란 불교 전반에서는 법을 설하여 신도를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승려(僧侶)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출가 재가를 불문하고 모두를 법사라고 부른다. '법사품'에서의 '법사'에 대한 원어는 다라마바나카(dharmabhanaka)로서 '설법자'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독송하는 사람 즉 이 <법화경>을 신도를 위해 널리 읽어서 들려주는 것을 직분으로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을 비롯한 8만 명의 보살들에게 "출가 수행이든 재가 수행이든 천신이나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두 불도를 구해서 이 <법화경>의 1구(一偈)~1구(一偈)라도 듣고 비록 한 생각(一念)이라도 기쁨을 내는 이

화산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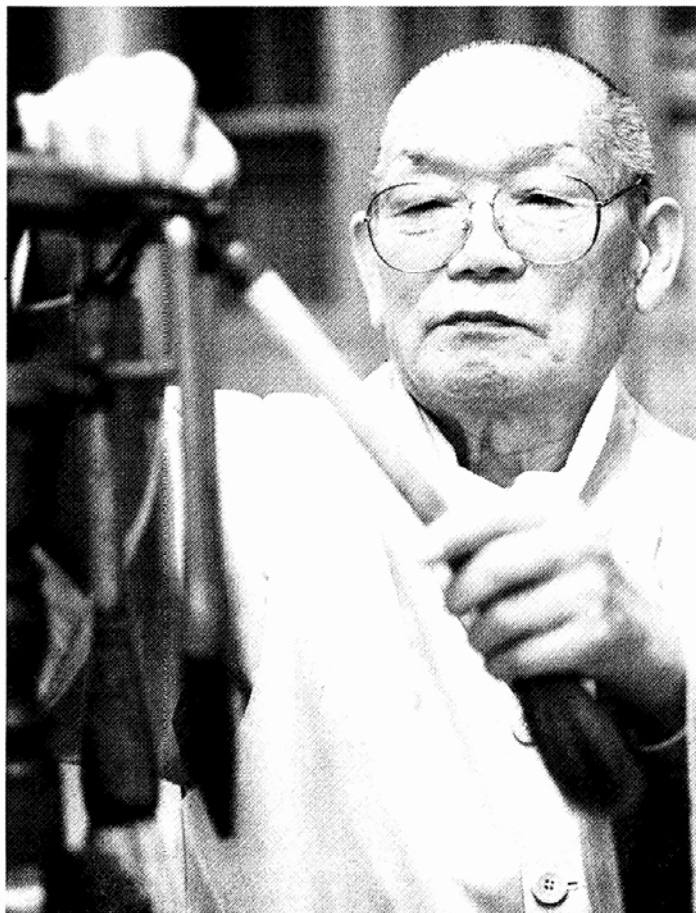
인정 많고 소탈...1962년 보광원 창건 포교전념

화산스님은 소탈하고 인정이 많은데다 겸손한 성격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져 있다. 겨울철에는 화분을 방안에 들여놓는데, 스님은 아랫목을 화분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서 잠을 잘 정도로 꽃과 나무를 아낀다고 한다. 또한 절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아 IMF 때 절을 찾아온 노숙자들에게 밥담을 속소로 내 줄 정도였다.

스님은 대구에서만 40년 넘게 포교활동을 해오면서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쌓아오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지역 현안이나 각 사찰들의 대소사 등과 관련해 스님의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스님은 23년째 모시고 있다는 보광원 자혜심 보살(55)은 "연세가 있으신 데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법문을 다니실 정도로 포교활동에 열심이다"고 말했다.

화산스님은 191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17세 때 통도사 자장암에서 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일본 임제선문학교와 성군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으며, 1962년 보광원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포교활동에 주력해 왔다.



화산스님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찾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한다.

본래 자리를 모르니 자기 사랑도 빛나가

사람들은 흔히 선(禪)을 무설토(無舌土)로, 교(敎)를 유설토(有舌土)로 간주한다. 즉, 교학은 언어에 의한 가르침이며, 선은 무한한 진여의 세계라는 표현이다. 근자에 와서는 선교논쟁이 수그러들었지만 한국불교 역사에서 이 둘이 서로 흠집내기에 몰두했던 흔적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혹자는 선교논쟁을 정치권의 '색깔론'처럼 소모적인 시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색깔'이나 '네 색깔'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화산스님 (보광원 조실)

잘못돼 가고 있어."

화산스님을 뵈자마자 선이 우선인지, 교가 우선인지를 여쭙었다. 스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스님의 행장을 살펴보았더니 한암스님을 스승으로 선을 공부했으면서도, 성군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이력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산스님의 답변의 핵심은 '불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중론사담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라서 몰으시나. 뻔한 걸 물어. 사람들은 모두가 따르므로입니다. 그저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 했지, 도무지 다른 사람들

면 왜곡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더러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야 무욕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자네 이름이 질문이 남아들었다. 적어도 진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너그러움(가) 생각으로, 스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 볼 참이었지만, 얼떨결에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다.

"한명우입니다."

"누가 한명우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질문이 달렸다.

"자네 이름은 진짜인가. 지금 한명우는

'禪과 敎' 우열 가리는건 무의미

을 생각할 줄 몰라. 부조화와 이기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그런데 불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할 불교가 오히려 욕심을 부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 점 티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불교의 본래 자리입니다."

본래 자리. 사람이건 종교건 세상이건 본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처음 그대로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억압이 없다면 자유를 알 수 없을 터이고, 진실이 없

그전의 누구인가."
기자를 물어지게 노력하시면 스님께서 갑자기 빙그레 웃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라는 짐다리리를 밟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리는 분명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본래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나쁜 일을 짓게 됩니다. 그 나쁜 일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악업입니다."

여래의 '심부름꾼' · '대행자'

수지·독·승·해설·서사 5종법사 지칭

뜻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을 간과(簡過)해서 안 될 것이다. 대승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대승에 치우쳐 금욕(禁欲)을 근본으로 하는 근본불교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금욕생활이 출가자라는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번뇌를 여의어 해탈에 이르는 길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사품'에서는 이 거룩한 경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닦는 사람, 즉 해설(解說)·서사(書寫)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남에게 법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래의 심부름꾼(使者), 또는 여래의 대행자라고 한다. 이 경전은 또 여래가 세상에 계시는 현재마저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진대 하물며 말법시대(末法時代) 즉 후악세(後惡世)에서는 이 <법화경>을 닦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며, 여래 멸후에 이 <법화경>을 수행 즉 닦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홍경(弘經)의 삼계(三軌) 즉 가르침을 닦는 세 가지의 바른 길

에게, 나는 모두 성불의 예언(豫記)을 주겠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여래가 멸도한 후인 미래 세에서도 똑같다"고 설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화경>을 비록 한 계승이라도 믿어 간직(受持)하고 읽고 외우며(讀誦) 해설(解說)하고 옮겨 써서(書寫)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이 경전에 꽃(華)·향(香)·목걸이(瓔珞)·가루 향(抹香)·바르는 향(塗香)·사르는 향(燒香)·비단 해 가리개(幡蓋)·깃발(幢幡)·의복(衣服)·기악(伎樂)을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는 사람도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수지·독·승·해설·서사의 다섯 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을 5종법사(五種法師)라고 부른다. 이 5종의 수행을 다시 신(身)·서(書)·구(口)·독(讀)·승(聲)·의(意)·수지(受持) 3업(三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수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하여 정행(正行)으로 하고 다른 네 가지를 조행(助行)으로 한다. 그리고 또 꽃·향·영락 등 열 가지의 공양을 열 가지 경전 공양 즉 10종 경전공양(十種經典供養)이라 부르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마음이란 너그러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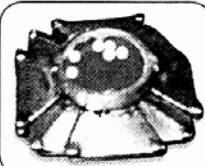
세상을 다 수용하지만

한번 응졸해 지면

비늘 꽃을 자리도 없어

"지금도 선이 우선이니 교가 우선이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우순은 얘기도 사람에게서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필요하듯이, 선과 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다고 생각해보시오. 참으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제각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전체가 하나이니, 그 하나에서 우등하고 열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선과 교도 그런 것입니다.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교가 고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요즘은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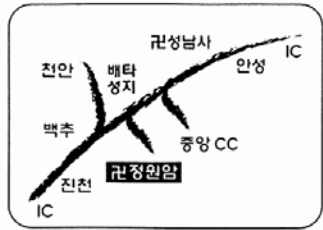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권 대한불교 정원암 조계종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인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자연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물이 식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본, 빈혈, 저혈압, 뇌기능약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본
- 신여모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본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본,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아리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사랑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화두

사자기바라의 겨울



사랑이 무참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랫동안 사랑에 대하여 묵묵히 침잠해 오던 저자가 마침내 사랑을 말하고 있다. 단신으로 일본 땅에 건너가 문자 그대로 파란 만장한 길을 거쳐 온 우리 여인네들의 애환을 잔잔히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석원연지음/신국판/값 8,500원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좌통의영지음/석원연옮김/신국판/값9,500원

선과 21세기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한 안내서 석원연지음/신국판/값6,600원